

아르누보 실내와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주요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Interior and Furniture

-Focused on the Works of the Central Architectures-

류 숙 희

아르누보 실내와 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주요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류 숙 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Interior and Furniture

-Focused on the Works of the Central Architectures-

Sook-hee Ryu*

목 차

- | | |
|---------------------|------------------------------|
| 1. 서론 | 4. 아르누보의 대표 디자이너의 실내와 가구의 특성 |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1 빅터 오르타 |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2 앙리 반데벨더 |
| 2. 아르누보의 정의와 성격 | 4-3 엑토르 기마르 |
| 2-1 아르누보 용어의 기원 | 4-4 안토니오 가우디 |
| 2-2 아르누보 조형 미학 | 4-5 찰스 레니 맥킨토시 |
| 2-3 아르누보 조형의 특징 | 4-6 분석의 종합 |
| 3. 아르누보의 이념과 일반적 고찰 | 5. 결론 |
| 3-1 역사주의 | 6. 참고문헌 |
| 3-2 아트 앤 크래프트 | |
| 3-3 일본 문화의 영향 | |
| 3-4 대륙의 영향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interior and furniture. For this purpose, the method of literature analysis was used. Firs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Art Nouveau were investigated. Then the central architects of Art Nouveau were selected; Victor Horta, Henri Van de Velde, Hector Guimard, Antoni Gaudi and Charles Rennie Mackintosh, and their interior and furniture works were investigat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Art Nouveau interior and furniture. Their interior and furniture works were fantastic and their designs became the base of Bauhaus, the beginning of modern design.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Division of Design,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360-76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난 세기의 예술의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 시대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사회의 산물인 예술의 형성에 있어서 회화와 디자인, 건축은 서로 유리되기보다는 오히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그러나 역사적 예술 양식은 쇠퇴한 일이 없었으며 계속 재흥되어 왔고, 조형 역사는 항상 앞 시대를 초월하여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앞 시대의 것을 받아들여 왔다. 아르누보의 양식은 현대가 요구하는 기능적, 현실적 취향의 디자인이라는 점과 특히 일반대중을 위한 대량생산에서는 실패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자각운동, 즉 20세기 초부터 시작한 기능화 대량화 기계화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던 제장식과 미술 분야에서 인간의 손길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어넣자는 움직임은 로버트 벤추리(Robert Venturi)의 장식 없는 것은 지루하다(Less is Bore)라는 주장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아르누보를 보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시대에는 항상 새로운 의미, 가치, 열망을 표현하는 새로운 형태가 개발되었다.

조형 본질은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들에 의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권 내에서 독특하게 형성된 어떤 존재 양식의 전형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양식의 전형들에 대한 인과 관계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의사소통하는 일이야말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¹⁾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 벨기에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아르누보 형태의 조형미학과 아르누보가 모더니즘의 전주이며 이

운동의 선두주자였던 건축가를 돌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아르누보 개념 작가의 작품들을 다룬 문헌을 조사하는 문헌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모더니즘의 전주인 아르누보의 형성과정과 그 이념적 배경을 살펴보고, 아르누보의 가장 활발한 시기(1892-1902)에 주로 활동한 대표적인 건축가 앙리 반테벨더, 빅터 오르타, 엑토르 기마르, 안토니오 가우디 및 찰스 레니 맥킨토시 작품의 실내와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르누보 실내와 가구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2. 아르누보의 성격

2-1 아르누보 용어의 기원

아르누보-신미술-라는 용어는 원래 사무엘 빙(Samuel Bing)이 현대적인 장식으로 시작하였던 화랑의 명칭인 아르누보의 집(Maison de l'Art Nouveau)에서 기원된다. 원래 독일에서 화랑을 경영하던 빙은 1871년 피리로 옮겨와 동양미술을 취급하는 화상을 경영하게 되는데 1895년 신미술(L'Art Nouveau)이라는 현대미술을 취급하는 상점을 경영하면서 이에 반테벨데(Van de Valde)에게 4개의 방을 아르누보 양식으로 디자인하도록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실은 이 상점의 실내장식을 담당하던 반 데 벨데가 1894년 브뤼셀에서 열렸던 만국박람회에서 새로운 양식의 가구를 출품하여 이것을 신미술이라고 하였고, 이보다 2년 전에 '새로운 예술의 선언'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 말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르누보'라는 용어가 여기서 기원됨을 유추할 수 있다.

아르누보는 많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과 정교한 형태의 예술, 시적인 혹은 상징적인 주제의 순수

1) 김민수. 1994. 모던디자인 비평. 27쪽. 안그라픽스. 서울.

한 미와 장식의 예술, 여성적이고 퇴폐적인 예술 등이었다. 특히 아르누보의 여러 가지 장식적인 특징은 보다 직접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불렸던 용어에서 알 수 있다.

자유, 새로움이라는 의미의 분리 양식(Secession Style), 젊은 양식(Jugend Stil), 신양식(Style Nouvelle), 현대 양식(Modern Style), 자유 양식(Liberty Style) 등으로 불렸으며, 경멸하는 의미에서 지하철 양식, 허약한 양식, 소용돌이 양식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아르누보의 예술가들은 전통에 대해 자유로움과 생동감을 기저로 하여 새로운 형태, 새로운 감각, 새로운 표현방법의 대담한 시도를 하였고, 기계화, 리얼리즘, 구식의 아카데미즘에 싫증을 느껴 이들에 상대되는 자유로움을 구가하였다.²⁾

2-2 아르누보 조형 미학

아르누보 조형은 식물적, 동물적인 자연 형태의 모티브를 갖고 있다. 즉, 아르누보 실내 조형은 형태보다는 장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아르누보의 유기적인 입체적, 평면적 장식은 당시 새로운 재료인 철과 유리에 의해 가능하였다. 철의 특징인 유연성은 유기적 곡선의 식물 형태를, 그리고 그 강성은 가늘고 긴 기둥을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아르누보 조형은 건축과 응용예술, 즉 장식 예술, 공예와 일상용품³⁾-스푼, 식기, 의상, 장신구 등-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순수예술인 인상주의계 미술-회화, 조각-과 깊이 연관되어서 조형예술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3 아르누보 조형의 특징

아르누보의 조형 표현 상 특징은 선과 평면

이다. 선은 흐르는 듯한 유동선과 사물의 윤곽선인 유기적 곡선이며, 식물적인 선과 동물적인 선, 즉 생물적인 선이다. 식물 선에 의한 형태의 주제는 꽃봉우리, 꽃, 줄기, 수목 등이며, 동물 선에 의한 형태의 주제는 백조, 공작, 잠자리, 뱀 등이다. 그래서 아르누보 조형의 모티브는 자연주의적 경향의 바이탈리즘(vitalism)이다.

아르누보의 조형 모티브인 식물적 곡선은 윌리엄 브레이크의 흐르는 듯한 동선-S곡선, C곡선-과 그 리듬, 비대칭성, 식물적 모티브를 그 원천⁴⁾으로 하며, 로제티 회화에서 보이는 환상성을 그 조형의 미로 한다.

오웬 존스의 ‘모든 식물의 형태 내에 존재하는 기본적 활력에 충만된 구조 질서로서의 생명의 선’⁵⁾이라는 사고는 식물적 곡선인 아르누보 조형의 선의 의미가 된 것이다.

아르누보 조형의 다른 특징인 평면은 사물의 윤곽선인데, 이것은 고갱, 로트렉 등의 인상주의계 회화⁶⁾-깊이를 부정한 평면적 곡선=시루엣-에 의한 평면적 의미이다.

앙리 반테벨더의 아르누보 선언의 주제인 백합줄기와 같이 긴 감각적 곡선, 곤충의 촉각, 꽃의 술, 화염, 파도처럼 흐르는 곡선 등은 자연주의적인 모티브를 장식화, 상징화하는 것이다.⁷⁾

아르누보계 조형의 전체적인 조형특성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식물적 곡선이다. 식물적, 유기적인 것, 즉 자연주의가 19세기말의 정념이었다.⁸⁾

4) 윌리엄 브레이크(1757-1828)는 영국의 화가, 판화가로 아르누보 조형의 원천이 되었음. 권태문. 1992. 현대건축 제1기 조형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4. 146.

5) 오웬 존슨 등은 1856년 ‘장식과 문양’을 저술하고 각국의 문양을 장식화 하였음.

6) 고갱의 회화에서 상징적으로 보임.

7) 앙리 반테벨더는 인상주의 화가에서 실내장식, 예술건축으로 전향한 예술가로 아르누보 선언을 통해 아르누보 조형의 기초를 만들었음.

8) 19세기 중반에는 자연주의가 모든 영역을 지배했음.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2) 이춘섭. 2003. 모더니즘 실내디자인. 35쪽. 형설출판사. 서울.

3)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김창수(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73-76쪽. 태림문화사. 서울.

과거 양식에 심취하였던 역사주의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기계와 예술이 관념의 대립과 갈등을 거친 후, 아르누보의 등장은 그 당시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양식의 출발이었다. 이는 기계 미학에 입각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전주라 할 수 있다.



<그림 1> 맥머르도의 '레스 시립 교회' 표지 (1883)



<그림 2> 헤이우드의 '물의 요정' 장정 (1888)



<그림 3> 존 라 파르그의 '공작새와 작약' (1885경)



<그림 4> 오귀스트 로댕의 '다나이드' (1885)

3. 아르누보의 이념적 배경

3-1 역사주의

아르누보는 결코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즉, 고딕, 로코코, 바로코 등 각각의 양식은 이 아르누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고딕은 이론에, 바로코는 형에서의 조형적 개념(plastic concept)에, 로코코는 비대칭의 원리에 기여하였다.⁹⁾

김창수(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72쪽. 태림문화사. 서울.
9) 박홍. 2001.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149쪽. 기문

3-2 아트 앤 크래프트

아르누보의 흐르는 듯한 선, 가구디자인의 단순성, 격식의 거부 등을 예술과 공예운동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아르누보가 선의 장식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었다면 미술과 공예 운동(Art and Craft Movement)은 정신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구조적인 형태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운동 모두 역사주의의 허구적이고 형식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고 지나친 장식에 대한 반항에서 미술과 공예를 새로이 하자는 움직임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내면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개념은 19세기 중반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모든 예술을 동질의 미감으로 보는 개념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산업화에 따른 폐단에 대해 영국의 선구자들에 의해 미술과 공예 운동으로 시작되어, 아르누보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대륙적 예술운동 중 오스트리아 제세션(Sessesion) 운동은 독자적 방향을 지향했으나, 그 조형은 아르누보적 형태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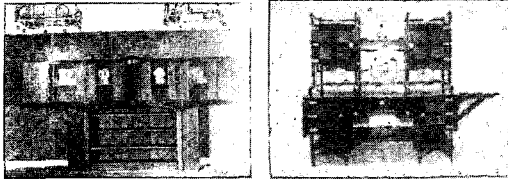
3-3 일본 문화의 영향

1982년 런던 박람회에서는 일본이 2세기 동안의 쇠국정치 끝에 미국과 1854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유럽 열강과도 유사한 조약을 맺은 후, 중국과 나란히 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어 유럽인들이 당시 갈구하던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촉매제가 되었는데 특히 일본 미술은 새로운 것으로서 서구 미술가들에게 충격적인 것이었고 진기하게 비쳐졌던 것이다.

영국의 미술과 공예 운동의 선구적인 디자이너 월터 크레인(Walter Crane: 1845-1915)은 "일본 회화와 공예는 유럽 중세 시대의 모든 장식품의 형식과 같은 자유롭고 비형식적

당. 서울.
10) 백성중, 윤재희. 1989. 아르누보 건축. 35쪽. 세진사. 서울.

인 자연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통과 공예 정신이 그대로 남아 살아 있는 예술이고 인간 예술이다.”고 하였다.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은 일상의 부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는 일본 예술에 대해 감탄하였다.



<그림 5> 윈디힐 디로잉 (1901) <그림 6> 고드윈의 진림의 책장 (1870)

또한 윌리엄 로제티(William M. Rosseti)는 “우리 주위에 일본 열병(Japanese Mania)이 1963년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 그 당시 일본 붐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3-4 대륙의 영향

1892년 맥킨토시가 건축한 성당 부속건물의 일종인 Chapter House의 디자인은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태리 르네상스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Building News’라는 잡지의 기사에서 “그가 이태리에서 보았던 건축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논평하였다.

1892년 영국 건축 왕립학회의 Soant Medallion을 위한 지부회관 설계와 1896년 글래스고우 예술학교 정면(그림 7)의 표현 언어는 예술과 공예운동의 고딕과 이탈리아풍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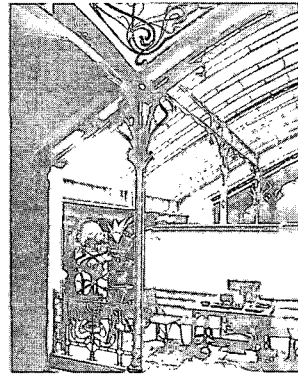


<그림 7> 글래스고우 예술학교 정면(1897-1909)

4. 아르누보의 실내와 가구의 특성

4-1 빅터 오르타 (1861-1946)

오르타의 걸작은 그가 설계한 최초의 건축물로서 이전에는 튜란 12번가였던 브뤼셀에 있는 타설(Tassel) 하우스(그림 8)이다. 이 주택은 1892년에 건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내부, 특히 계단의 뛰어난 장식은 맥머도와 비어슬리, 그리고 투톱의 디자인에서 적절히 분석되어 온 아르누보의 주요 모티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림 8> 타설 하우스 (18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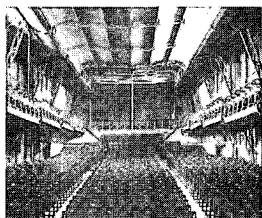
그 평면 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와 규격을 가진 공간을 제시하면서 대칭적으로 개조한 개공간(open space)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욱이 계단 홀에 디자인된 적나라한 철 구조의 노출을 장식에 사용하여 내부에 적용한 혁신적인 시도였다. 철재 기둥은 바닥에서부터 철재의 파도치는 듯한 식물 당초문의 장식이 천장까지 뻗쳐있으며 동일한 형태의 덩굴손들이 벽에 그려져 있으며 바닥 위에는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지지가등 꼭대기에 있는 까치발(bracket) 위와 모든 난간을 다라서 굽은 철로 장식되어 있다. 오르타는 자신의 영국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가 센츄리 길드나 다이얼 등 다른 영국의 장식을 창조해내었다고는 거의 믿어지지 않는다.¹¹⁾

11)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김창수

오르타의 모든 디자인처럼 타셀 주택 계획은 대부분의 방에서 자유로운 동선을 이루어냈다.

벨기에 사회주의 정당 건물 (Maison du Peuple, 1896-1899, 1965년 철거)은 오르타가 디자인 한 아르누보 건물들 중 특히 우수한 작품으로 벨기에에서는 처음으로 건물 파사드에 유리 와 쇠를 이용해 디자인했을 뿐 아니라 계단과 구조가 자연스럽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9). 또한 실내에는 유연한 선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금속과 유리의 강한 면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전체적으로 구조물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오르타 자신을 위해 1898년 아메리카에 설계한 주택(Maison Personnelle et Atelier)은 비대칭적인 파사드와 함께 쇠로 만든 문손잡이, 계단 레일, 벽지와 가구장식 등 독특한 아르누보 실내 디자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솔베이 주택(Hotel Solvay, 1895-1900)은 오르타의 아르누보 건축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아르누보 건축물 주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실내 장식과 가구 등이 서로 잘 조화된 걸작이다(그림 10).



<그림 9> 사회주의 정당 건물(189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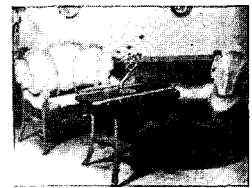
<그림 10> 솔베이 주택(1895-1900)

그림 11은 오르타가 1899년에 지은 익셀에 있는 자택의 거실로 하얀 에나멜로 칠해진 벽등과 조화를 이룬 감미로운 색채의 물푸레나무는 따뜻하고 우아하며 수수한 실내를 창조

하고 있다. 그의 가구는 그림 12에서 보듯 의자 등판 모티브는 꽃잎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꽃잎의 여운만을 남긴 것 같은 구조적인 형태를 하고 있어서 실내장식에서 볼 수 있는 자유자재로 곡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세련미를 우선한 벨기에 아르누보 가구의 특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1> 익셀의 자택 거실 (1898)



<그림 12> 의자 세트 (1890년대)

4-2 앙리 반데벨더 (1863-1957)

프랑스, 독일, 벨기에에서 정기간행물 사설로 많은 영향을 주고 '근대 미술에서의 르네상스 (Dive Renaissance in Modernen Kunstgewerbe)'의 저자이며 디자인이론가이자 전도사인 앙리 반데벨더(Henri Van de Velde)는 벨기에의 디자이너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오르타의 건물이 지어지던 시기에 반데벨더는 플레쉬 지방 고유의 전통에 따라 작업하였다.¹²⁾

반데벨더는 건축, 회화, 공예 등의 모든 영역에 심취하였으며, 모리스와 마찬가지로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전 영역에서 활동한 작가이다. 반데벨더는 1882년 홀타가 타셀 주택을 디자인하였을 당시만 해도 장식디자인 분야를 시작하지 않았으나 그의 첫 작품 유클 하우스(Uccle House, 1895-1896)에서는 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또한 가구디자인에서는 보이지(Voysey)의 영향을 받아 간결하고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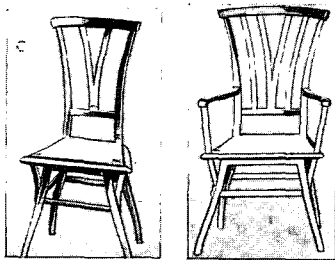
(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107쪽. 태림문화사. 서울.

12)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역). 1999.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38쪽. 시공사. 서울.

아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그림 13). 그의 가구는 곡선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아르누보적 이지만 그 곡선은 동시에 홀타가 가지고 있는 사치스럽고 우미한 것과는 다른 긴장된 힘의 표현을 보이고 있다.¹³⁾ 또 우클 하우스에서 그가 디자인한 의자들(그림 14)에서는 기능적인 측면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 우클 하우스 (1895-96)



<그림 14> 우클 하우스의 의자 (1894-95)

이러한 우아함과 힘의 조화는 그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파리의 대중에게 알려졌을 때 공꾸르에게 영감을 주어 뛰어난 예언자적인 용어 '요팅 스타일'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¹⁴⁾

처음으로 브뤼셀 근처 익셀에 있는 블루멘워프 별장(Villa Bloemenwelf, 1895)은 초기 영국의 모델, 특히 보이지와 베일리 스콧의 디자인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곳에는 위층의

방과 복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복층으로 된 홀이 있다. 반 데 벨더는 그 집을 수수하고 튼튼한 가구와 간결한 자연주의 적인 벽지로 디자인 하였다. 첫 번째 벽지 디자인에서의 도한 것은 자신이 이야기했듯이, 전체에 통일감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주색, 청색, 녹색 등의 세 가지 색은 회반죽을 바른 벽, 회색과 진녹색의 방공벽, 불그스래한 지붕 타일에 반복되었다.¹⁵⁾

그는 또한 벽지와 능라(綾羅), 책의 장식, 가구 등을 디자인 하였다. 그의 자택을 위해 제작된 것이다. 그것들은 곡선들의 울동에 있어서는 아르누보적 이지만 동시에 이 곡선들에는 오르타의 선들이 지니는 풍요한 우아함과 전혀 다른 긴장된 힘이 내재되어 있다.

오르타의 작품 이면에는

누구나 자연, 식물, 그리고 동물적인 속성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반 데 벨더의 디자인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추상적이며, 물체 또는 물체가 소속되는 부분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하였다.¹⁶⁾ 비장식적인 단순한 좁은 나무쪽으로 된 식당을 위한 가구 세트에서 그의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15).



<그림 15> 식당을 위한 가구세트 (1896)

1902년에 제작된 그의 후기 가구 양식은 영국 가구의 목직한 견고성과 프랑스 가구의 우아한 세련미를 가미한 중도양식이 되었다.¹⁷⁾

13) 이춘섭. 2003. 모더니즘 실내디자인. 42쪽. 형설출판사. 서울.

14)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김창수(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110쪽. 태림문화사. 서울.

15)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역). 1999.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39쪽. 시공사. 서울.

16)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김창수(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108쪽. 태림문화사. 서울.

17) Stephan Tschudi Madsen. 1980. *Source of Art Nouveau*. p.332. Architectural Book Publishing. New York. (Trans. R. I. Christopherson).

4-3 엑토르 기마르 (1867-1942)

벨기에의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은 브뤼셀을 방문하는 프랑스 디자이너와 상점 주인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그 영향을 받은 파리의 첫 번째 디자이너가 파리 지하철역의 금속세공으로 매우 잘 알려진 엑토르 기마르(Hector Gulmard)였다.¹⁸⁾ 여기에서 기마르는 철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이용하여 직물 형태의 유기적 특성을 아르누보풍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주형으로 만들어진 유려한 형태로 좌우 비대칭의 아르누보의 특징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빠른 교통수단이 상징하는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1910년 이후부터 그는 보다 대담한 주철의 사용과 추상형의 도입으로 파리라는 지역성이 가지고 있는 로코코의 우아함과 18세기적인 세부묘사를 동시에 추구한 철 조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퐁텐가에 있는 카스텔 베랑제르 아파트 단지(Castel Beranger, 1895-97)의 인테리어에서 기마르는 물결 모양의 비대칭적인 선을 이용해서 36개 아파트의 가구 벽지 카펫 모자이크 바닥과 심지어 문손잡이까지 디자인하였다. 그는 가장 독특하고 흥미 있는 현관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공간을 할애하였다. 현관 입구에 있는 연철과 구리로 만든 문에는 아르누보 디자인의 모든 주된 요소가 사용되었다. 거기에는 비대칭적인 자연스러운 형태의 장식과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선이 반복적으로 사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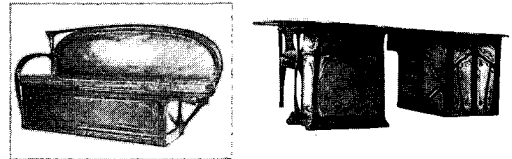


<그림 16> 카스텔 베랑제르 아파트 단지 입구 (1895-97)

18)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역). 1999.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39쪽. 시공사. 서울.

었다. 그런 변형된 모양은 현관에서 늘어진 초록색 세라믹 판벽, 카펫, 계단 손잡이, 색유리에도 나타났다. 거기에 비하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장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나 모든 가구와 설비에 비대칭적이고 길고 감긴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양식적인 통일을 이루었다. 변형되고 유동적인 모양으로 구조된 문손잡이, 벽난로, 긴 의자는 벨기에의 아르누보보다 더 극적인 형태였다.¹⁹⁾

쥬르당의 사마리테인(Samaritaine) 백화점은 메트로 지하철역 입구와 함께 기마르의 대표적인 아르누보 작품으로서 메트로보다 훨씬 적나라한 외부의 철재 프레임 장식을 하고 있다. 구조적인 목적으로 되어있는 철재 부재는 아르누보형으로 변형되지는 않았으나 장식적인 아름다운 형태가 철재 부재를 에워싸고 있어 아르누보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발전된 프랑스 로코코 양식의 유산을 아르누보 양식으로 승화시키면서 전승되어 온 고도의 장인 정신을 적절히 사용한 예라고 할 것이다.²⁰⁾



<그림 17> 기마르의 의자와 책상 (1897-99)

4-4 안토니오 가우디 (1852-1926)

아르테 모데르노(Arte Moderno)²¹⁾의 발흥지는 당시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던 카탈로니아 지방의 중심지인 바르셀로나였다. 그 양식의 가장 두드러진 건축 디자인은 아파트 단지와 교회 디자인을 통해 종교적인 믿음과 뜨거운 민족주의를 표현한 안토니오 가우디(Antoni Gaudi)였다. 그는 한편으로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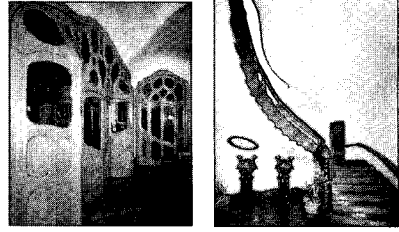
19) 강병국(역). Hector Guimard. 42쪽. 공간도서. 서울.

20) 이훈섭. 2003. 모더니즘 실내디자인. 46쪽. 형설출판사. 서울.

21) 스페인에서 널리 알려진 양식

올레르 뒤크의 유기적인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튜디오’의 예술공예운동,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디자인과 관련 없이 디자인하려는 그 자신의 욕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는 유기적이고 넘쳐흐르는 듯한 용암 형태로 모든 실내를 디자인하였다. 카사 바틀로(Casa Batlo, 1904-06)에서 가우디의 임무는 건물의 외관을 새로 칠하고 아파트 블럭을 새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그 내부에는 물결치는 듯한 천장과 특이하게 구부러진 창문들과 문틀이 있고 가우디가 디자인한 견고한 참나무 조각의 식물형태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²²⁾

카사 바틀로의 벽들은 모래성의 벽처럼 철썩대는 물결에 의해 침식된 것처럼 보인다. 그 벽들은 물기둥을 통해 보이는 것처럼 굽어친다. 이 카사 바틀로는 그것이 스페인식 바로코에 기인함을 알고 있는 스페인 사람보다 외국인에게 더 낮이 설다. 실내의 문들과 조각한 의자를 둘러싼 불규칙한 무늬는 전적으로 가우디의 초현실적 환상의 소산이다. 이 인테리어와 마찬가지로 그의 손으로 만든 의자의 기괴하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는 산업화된 사회와는 무관하다. 이것은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기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가우디의 의도를 분명히 해주며 그것 때문에 그의 의자와 인테리어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²³⁾



<그림 18> 바틀로 저택' (1904-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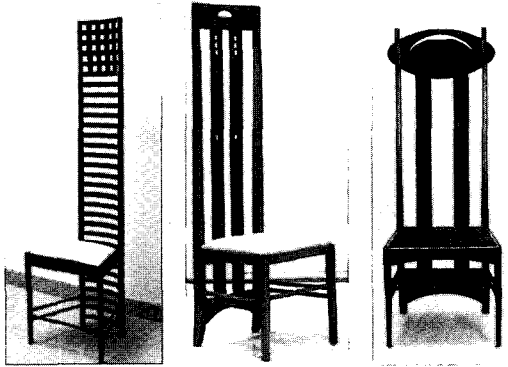
4-5 찰스 레니 맥킨토시 (1868-1928)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를 중심으로 활동한 맥킨토시는 독창적인 양식으로 건축과 디자인에 있어 근대 디자인을 확립시킨 사람이다. 그의 예술은 스코틀랜드 켈트족의 정신과 기질에서 왔다. 그의 아르누보의 인테리어는 당시 유행하는 화려한 곡선양식이 아닌 직선적인 면구성과 수직적인 구조미와 함께 나타난다. 비록 주문 생산만 하였지만 맥킨토시의 의자는 직선주의 아르누보를 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Hill House의 Ladder-back chair(그림 18)와 Ingram high back chair(그림 19)는 의자디자인의 극치를 보여준다. 특히 Argyle chair(그림 20)는 등받이가 높으며 머리부분에 기하학적 형태의(아르누보적인) 타원과 가늘고 평평한 면과 매끈한 표면이 강조되었으며 회화적, 주술적인 것 등을 상상하게 한다. 그는 실내장식이나 가구구조 내부에 공간이 있도록 설계하였다. Willow chair(그림 21)의 경우 빛이 공간을 통과 하게끔 설계한 좋은 예 중 하나이다. 맥킨토시는 흰색 벽으로 된 실내에 그의 극적으로 직선주의적인 책상과 의자를 놓았고, 의자 등받이와 벽의 부조(浮彫)에 그의 부인의 장식들을 박아 놓았다. 맥킨토시는 글래스고우 미술학교에 있는 그의 도서관에 일본 건축가와 같은 고도의 섬세함으로 단순한 나무 대들보를 이용하였다.

22)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역). 1999.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39쪽. 시공사. 서울.

23) Ann Ferebee, A History of Design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서병기(역). 1982. 디자인 소사. 72쪽. 미진사. 서울.

<표 1> 주요 아르누보 작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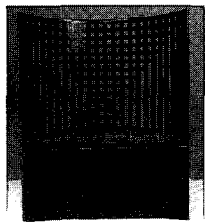


<그림 18>
Ladder-back
chair (1903)

<그림 19>
Ingram high
back chair
(1901)

<그림 20>
Argyle
chair (1897)

글래스고우를 넘어서 직선주의 아르누보는 베를린과 비엔나에서 꽃을 피웠다. 맥킨토시와 같이 비엔나의 건축가 호프만(Josef Hoffmann, 1870-1955)도 육면체와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맥킨토시가 장식부조에 부인과 처제가 장안한 패턴을 사용하였는데 비해 호프만은 오스트리아 화가 클림트(Gustav Klimt)의 비잔틴에서 유래한 모자이크를 이용하였다. 이처럼 맥킨토시는 비엔나 세세이션에 큰 영향을 주었다(그림 22).



<그림 21> Willow
chair (1903)



<그림 22> 비인 세세션 전
람회에 출품한 방 (1900)

4-6 분석의 종합

아르누보의 주요 작가들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유기적 장식은 자연적인 모티브와 자유로운 표현의도의 결과로 선과 볼륨에 의해 철과 표면재료를 이용한 세기말적 현상을 대변한 한 비대칭적 곡선의 율동감으로 화려하며

작가	사례	장식성	주재료	심미성
오르타 (1861- 1946, 벨기에)		-넝쿨손 형태의 선형적 구성(2차원+3차원적 선형 형태) -철재의 기능성+장식성	주철, 참나무, 마호가니, 너도밤나무	-상부 밝은 친정: 유기적 생명 상징 -건물 전체: 인공 낙원 상징 -구조에 장식적 가치 부여: 브레이크의 길게 휘어진 우아미 -곡선 모자이크
반 데 벨더 (1863- 1957, 벨기에)		-식물의 줄기를 추상화한 역동적인 조형성	목재, 철	-곡선의 부드러운 기울어진 딱딱함을 깨고 있다. -추상된 곡선 장식 -표면의 기하학적 직선으로 단순함이 기본적 특징
가마르 (1867- 1942, 프랑스)		-숲의 수목의 야성과 율동감 표현 -좌우 비대칭으로 율동성 -천장장식의 유려한 곡선 -2차원+3차원적 선형 형태	다양한 재료 사용, 철세공 장식	-외부의 성과 내부의 숲의 이미지 -유동적 곡선의 화려함 -천정, 벽장식" 면의 파동형
가우디 (1852- 1926, 스페인)		-기괴한 독특한 연출 -자연의 유기적이고 기하학 형태 -볼륨에 의한 조소적 형태	타일, 등재사의 창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조소성
맥킨토시 (1868- 1928, 스코틀랜드)		-명쾌한 선과 면으로 구성 -2차원+3차원적 기하학적 조형	목재, 유리	-정방형의 반복분할 단순, 명쾌한 수직성 강조

환상적인 표현양상을 보인 것으로서 오르타, 기마르, 가우디 등이 대표적이며, 기하학적 장식은 유기적 유기적형태가 차츰 매너리즘적 성격과 함께 시대적 근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건축가의 새로운 인식에서 추상화가 이루어져 간결하고 단순 명쾌한 기하학적 선의 형태로 상징성에 의한 표현양상을 보인 것으로 반테벨더, 맥킨토시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5. 결론

이 논문은 아르누보의 실내디자인과 가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빅터 오르타, 앙리 반테벨더, 엑토르 기마르, 안토니오 가우디, 찰스 레니 맥킨토시의 작품을 통해 19세기 말(세기말) 아르누보실내디자인과 가구디자인을 규명하였다. 아르누보 양식은 기존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 미술공예운동과 회화상 블레이크 (W.Blake), 라파엘전과 등의 영향을 받아 예술적 심미성 구현의 수단으로 장식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장식은 구조와의 조화를 피하여 생생한 으로 매개하여 새로움을 창출하여 표현 한다

이러한 표현 양상은 유기적 장식과 기하학적 장식, 형태로 대별되어 나타났다. 아르누보 작가들은 장식적인 양식에 심취하기는 하였으나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기능적인방법에 접근하려고 고심하였다.

아르누보는 의미의 억제로부터 순수 시각적 매력을 자유롭게 하도록 시도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자발적인 곡선이 만들어졌고 자연은 디자인의 유력한 모티브가 되었다. 각각의 작가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기말적 시대정신을 담은 아르누보는 꽃과 곤충 등 자연적 모티브를 철과 유리라는 이질적 재료에 조화시켰으며 19세기 말의 현상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존재의 깊이에 대한 고뇌를 형상화한 조형으로 무의식적인 상징성, 추상성을 갖는 진정한 환상적 실내를 만들었으며 자연 형태로 구성되는 외부 장식, 실내장식은 철의

유연성과 강성에 의해 표현되었는데, 가늘고 긴 식물 장식 기둥과 투명한 유리 벽면이 구성하는 건축 조형이 경쾌함은 현대 건축 조형에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우디와 맥킨토시는 각각의 아르누보 스타일을 만들어서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정신과 스타일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 까지 크게 확산되었고, 독일에서는 유겐트스틸이라는 지역적 양식을 낳았고 맥킨토시의 경우 비엔나 세세이션에 영향과 20세기 초기에 전개되는 아르데코 양식의 성립 기반이 되었으며 현대 디자인의 모태인 바우하우스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덧붙여 공예성과 서정성이 풍부한 아르누보양식은 지나친 기능주의와 물질만능의 시대인 오늘날, 마음의 여유와 쉽터가 되는 양식으로 주목해 볼직하다.

6. 참고문헌

1. 강병국(역), Hector Guimard. 공간도서, 서울.
2. 권태문. 1999. 현대건축 제1기 조형의 예술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4: 143-153.
3. 김민수. 1994.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서울.
4. 류숙희. 1995. 맥킨토쉬의 가구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5. 박홍. 2001. 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 기문당. 서울.
6. 백성중, 윤재희. 1989. 아르누보 건축. 세진사. 서울.
7. 이춘섭. 1999. 모더니즘 실내디자인. 형설출판사. 서울.
8. 진경돈 편저. 1999. 서양건축양식사. 도서출판 국제. 서울.
9. Ann Ferebee, A History of Design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Present, 서병기(역). 1982. 디자인 소사. 미진사. 서울.
10. Anne Massey, Interior Design of the 20th Century, 김주연(역). 1999. 20세기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사. 서울.
11. Nikolaus Pevsner, Pioneers of Modern Design from Morris to Walter Gropius, 김성신, 김창수(역). 1986. 근대건축과 디자인의 원천., 태림문화사. 서울.
12. Nikolaus Pevsner. 1968. The Sources of Modern Architecture and Design. Thames and Hudson Ltd.. London.